

진지한 여가의 여가활동 참여 모형

- 암벽 등반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

최아현* · 김유일**

*(주)도화엔지니어링 ·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I. 서론

여가의 의미가 개인적인 다양한 특성을 포함하게 되면서 사회학적 관점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여가를 정의하려는 연구가 수행되었다(Csikszentmihalyi, 1975; Kelly, 1996).

Stebbins(1982)는 여가를 개인적 표현, 자아실현, 정체성 향상, 자기만족과 같은 개인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인식하고, 이러한 개인적 목표의 성취는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여가활동 참여자의 주관적인 의도를 강조하는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를 처음 소개했으며, 그 정의와 특성 등의 이론적 틀을 제시했다.

노동시간의 단축, 가족관계의 변화 및 평균 수명의 연장과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의해 잉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여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통해 여가활동 방안의 다각적인 모색을 요구하고 있으며, 진지한 여가는 단순히 또 다른 하나의 여가유형이 아닌 여가영역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현상의 연장선 위에서 발견되는 진지한 여가활동 참여과정은 동기, 제약 및 협상 등과 같은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여가 형태, 참여자 특성 및 여가 동기 등에 따라 관계의 경로와 영향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진지한 여가의 이해를 위해 여가활동의 참여과정에서 다양하게 구현되는 제약과 협상의 관계는 진지한 여가활동 참여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여가활동의 참여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이 여가활동 참여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가활동 참여과정에서 여가제약에 직면했을 때 다양한 협상 과정을 통해 제약을 극복하고 여가활동에 참여한다(Jackson and Rucks, 1995)는 보고는 본 연구의 기본적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제약효과 완화 모형(Hubbard and Mannell, 2001)과 Loucks -Atkinson and Mannell(2007)이 제안한 협상효능감 모형 4는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진지한 여가활동 참여과정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모형을 설정하는데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자기효능감, 여가동기, 여가제약 및 여가협상이 여가활동 참여에 이르는 구조적 관계를 구성

한 협상효능감 모형 4를 통해 진지한 여가활동의 참여과정을 분석하고 검증하는 것은 진지한 여가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충분한 가치와 의의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암벽 등반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지한 여가활동 참여과정에 관계하는 동기, 제약, 협상 및 자기효능감 등과 같은 요인들이 맺는 경로를 통하여 구성되는 구조적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진지한 여가활동 참여과정을 규명하고 기존 연구와의 논의를 통해 진지한 여가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II. 이론 고찰

1. 진지한 여가와 등반활동

진지한 여가란 여가의 한 형태로서,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진지함(seriousness)은 그것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일상적(casual) 또는 진지하지 않은(unserious) 여가라는 이분법적 비교를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고찰될 수 있다. 또한, 진지한 여가는 일상적 여가와 구별되는 인내심, 전문성, 개인적 노력, 지속적 혜택, 독특한 감정, 강한 동일시 등 여섯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Stebbins, 1992).

Stebbins(1992)는 진지한 여가활동의 유형인 아마추어, 취미 활동가 그리고 지원자의 여가활동의 차이점을 사회심리학적인

표 1. 진지한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특성 구분*

| 구분 | 아마추어 활동 | 취미 활동 | 지원 활동 |
|--------|--|----------------------------------|-------------------|
| 동기 | 1 개인적 관심 2 대중적 관심 3 이타주의 4 재정적 관심 | 1 개인적 관심 2 대중적 관심 3 재정적 관심 | 1 이타주의; 개인적 관심 |
| 사회적 역할 | 1 직업적전문가와 유사 | 1 비노동 | 1 위임된 직무 |
| 기여 | 1 만족감 2 문화적 3 도움 4 상업적 | 1 만족감 2 문화적 3 상업적 | 1 도움; 만족감 |

출처: Stebbins, 1992: 18

* 번호가 높을수록 보다 중심적인 특성을 나타냄

표 2. 일상적여가, 진지한 여가 및 프로젝트에 기초한 여가

| 구분 | 정의 |
|--------------|---|
| 일상적 여가 | 즉시 보상되어지는 것으로서 그것을 즐기기 위해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거나 적은 노력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여가활동 |
| 진지한 여가 | 아마추어나 취미생활자, 또는 자원자들이 여가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참여자 대부분이 그 활동의 가치와 흥미를 발견하여 관련 전문기술과 지식 그리고 경험 등을 쌓거나 표현하는데 집중하여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 여가활동 |
| 프로젝트에 기초한 여가 |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며, 적당히 복잡하고, 일회성이거나 때때로 일어나는 창조적인 일로써 상당한 계획, 노력 그리고 때로는 기술과 지식을 요구하지만 진지한 여가는 아니며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려 하지도 않는 여가활동 |

출처: Stebbins, 2007.

관점에서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진지한 여가의 고찰은 이분법적인 비교를 통해 일상적 여가와 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양측 어디에도 포함시키기 곤란한 제 3의 유형이 밝혀졌으며, 그 유형에 속하는 여가를 '프로젝트에 기초한 여가(project-bases leisure)'라고 정의 하였다 (Stebbins, 2005).

암벽 등반활동은 전문적 등산행위로서 모험스포츠의 하나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모험스포츠는 단순한 참여를 통해 신체적 만족을 느끼는 단계를 넘어서서 보다 독창적이고 스틸이 있으며, 극한 상황을 이겨내려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한계를 시험하고 극복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몰입과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박봉섭 등, 2008). 또한, 그 활동에 깊게 참여하면 할수록 즐거움, 스틸, 몰입, 자유 등을 더 인지하게 되고 역설적이게도 부상이나 죽음에 대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육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투자 등을 아끼지 않고 몰입하게 하는 특성이 있는 활동이다(박세혁, 1997). 이러한 특성은 '참여 분야에서 특정 기술의 습득과 지식의 추구 등 전문성을 얻기 위해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라는 진지한 여가의 특성(Stebbins, 1992)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박봉섭 등, 2008).

2. 협상효능감 모형

여가계약은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 만족도를 저해하거나 억제하는 모든 것(Jackson, 1988)으로 정의 되고, 개념적으로는 개인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으로 분류된다(Crawford et al., 1991). 제약의 유형 중 제약을 가장 강하게 인식하는 순서는 구조적 제약, 대인적 제약, 개인적 제약 순서로 나타나지만 인간 내적 제약(개인적 제약)이 여가활동 참여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Crawford et al., 1991; 김유일과 강석희, 2000).

여가계약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여가계약이 여가참여에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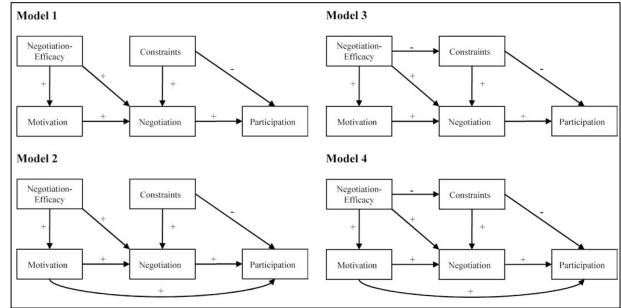


그림 1. 협상효능감 모형

출처: Loucks-Atkinson과 Mannell, 2007: 23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고(Carroll and Alexandris, 1997; Raedeke and Burton, 1997) 하였지만, 여가참여는 여가계약의 존재 유무보다는 여가계약 협상과정에서 의하여 결정된다 (Jackson et al., 1993)고 볼 수 있다. 즉, 사람들이 여가계약에 직면하게 될 경우, 해당 제약요인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거나 우회적으로 여건을 개선하여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것이다.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서 주어진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자원이나 동기 혹은 다양한 행동과정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 및 신념(Bandura, 1977)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행동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적인자(Bandura, 1977; Rosenstock et al., 1988)로 밝혀졌으며,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로 제시(Gortner and Jenkins, 1990)되고 있다. 자기효능감에 관한 지식은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및 생리적 상태 등 네 가지 근원 정보에 기반을 두고 있다(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이론은 여가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환경적 요인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시킬 수 있는 능력이며, 여가계약협상이론은 여가행동에 방해되는 제약을 협상 노력을 통해 극복하려는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이론은 여가행동에 있어 긍정적 관련성이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여가계약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시도들은 협상효능감에 대한 측정을 위한 협상효능감 모형(Loucks-Atkinson and Mannell, 2007)으로 발전하였다.

3. 연구가설 및 모형설정

여가참여에 대한 여가계약과 여가협상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으며, 자기효능감이 여가참여에 관계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Loucks-Atkinson과 Mannell(2007)이 제안한 협상효능감 모형 4를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의 검정을 통해 진지한 여가활동 참여과정에서 구현되는 여가계약과 협상의 관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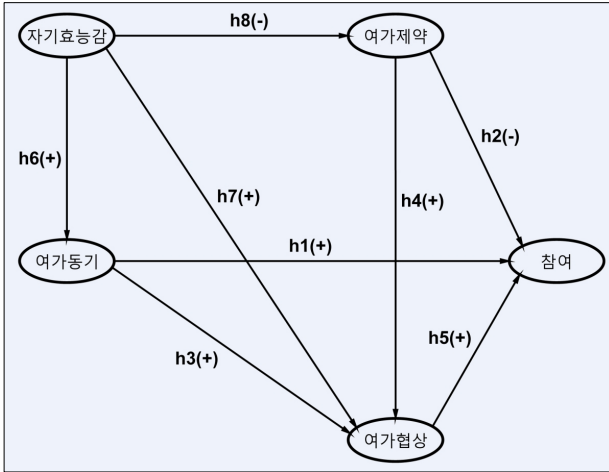


그림 2. 진지한 여가의 여가활동 참여 연구모형

자기효능감이 여가동기, 제약 및 협상에 어떠한 설명력을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설정된 연구모형을 통해 검정할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h1 : 여가동기는 암벽 등반활동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 h2 : 여가제약은 암벽 등반활동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h3 : 여가동기는 여가제약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h4 : 여가제약은 여가제약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h5 : 여가제약 협상은 암벽등반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h6 : 자기효능감은 여가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h7 : 자기효능감은 여가제약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 h8 : 자기효능감은 여가제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모형, 즉 진지한 여가 특성을 나타내는 암벽 등반활동 참여 과정에 구현되는 여가동기, 제약, 협상 및 자기효능감과 참여 사이의 영향과 관계이다.

조사대상은 수원시, 고양시 등에 거주하며 산악회, 동호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북한산, 설악산 등에서 암벽등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받은 암벽등반활동 경험자와 연구자가 직접 방문 조사하였다.

표본 추출은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특정집단에서

많은 표본을 추출하게 되면 추정량에 편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위 산악회, 동호회, 실내 암장 등에 대한 표집은 최대 30부로 제한하였다. 총 350부를 배포하였으며, 335부를 회수하여 주요 설문인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306부(87.4%)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암벽 등반활동 참여자들의 진지한 여가 특성을 확인하고, 암벽 등반활동 참여과정을 검정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자들의 여가 특성, 여가동기, 제약, 협상, 자기효능감, 등반활동 참여 및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등 7개 범주로 구성하였다. 설문의 대부분은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였으며, 등반활동 및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대한 항목은 직접기입식으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다.

여가 특성, 여가동기, 제약, 협상, 자기효능감 측정항목에 대한 설문 측정척도는 질문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것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표시하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대한 설문 중, 성별, 결혼 여부, 직업 및 학력 등의 항목의 설문 측정척도는 명목척도를 사용하였다.

2. 분석방법

응답자들의 진지한 여가 특성, 여가동기, 제약, 협상 및 자기효능감과 암벽 등반활동 특성 항목에 대한 문항분석과 전반적인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프로그램인 SPSS statistics Ver 15.0 (SPSS Inc., 2007)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암벽 등반활동의 참여과정을 가정한 연구모형의 검정에 유의한 요인을 구성하기 위해 여가동기, 제약 및 협상 측정항목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회전방식은 직각회전 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의 적합성은 표본적합도로 검정하였으며, 적합지수 기준은 .5 이상으로 하였다. 각 요인의 신뢰성은 내적일관성 지표인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으며 일반적 채택기준인 .60(Nunnally, 1978)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된 여가동기, 제약 및 협상 측정항목의 요인과 진지한 여가 척도를 통해 조사된 암벽 등반활동 특성이 진지한 여가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검정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분석방식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회전방식은 요인 사이의 상관성을 허용하는 사각회전 방식인 직접 오블리민 방식을 사용하였다. 추출된 요인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렴타당성과 편별타당성을 확보하였는지 검토하였다. 수렴타당성은 표준적재치와 측정항목의 오차를 계산하여 개념 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를 통해 확

인하였으며, 판별타당성은 분산추출지수와 각 요인의 결정계수를 확인하였다. 이론적으로 개념 신뢰도는 .7 이상, 분산추출지수는 .5 이상이면 신뢰도와 타당성은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으며, 각 요인 사이에 구한 분산추출지수가 각 요인의 상관계수의 제곱, 즉 결정계수(r^2)보다 크면 판별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해석하였다(Fornell and Larcker, 1981). 적합성 평가는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및 간명부합지수 등을 이용하였다.

끝으로 자기효능감, 여가동기, 제약, 협상 및 참여 등의 잠재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잠재변인들 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은 AMOS Ver 18.0(SPSS Inc., 2009)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성 평가는 확인적 요인분석과 마찬가지로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및 간명부합지수 등을 이용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적합도 및 경로계수 평가

여가동기, 제약, 협상, 자기효능감 및 참여 등의 인과관계를 가설을 통해서 수립한 연구모형을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을 통해 구성된 요인들로 이루어진 구조방정식모형으로 검정하였다.

진지한 여가의 특성을 나타내는 암벽 등반활동 참여과정에 있어 여가동기, 제약, 협상, 자기효능감 및 참여가 나타내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지수 분석 결과 절대적합지수는 $\chi^2=741.80$, 자유도 $df=478$, 유의수준 $p=.000$, CMIN/DF=1.55, GFI=.874, RMSEA=.043으로 나타났으며, 증분적합지수는 TLI=.930, CFI=.936으로 간명적합지수는 PCFI=.84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적절한 적합도를 보임으로써 적합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표 3. 연구모형의 모수추정 결과

| 경로 | 경로 계수 | 표준화 경로계수 | 표준 오차 | 기각역 | 유의 수준 |
|------------|-------|----------|-------|-------|---------|
| 여가동기←자기효능감 | .60 | .55 | .10 | 5.79 | .000*** |
| 여가제약←자기효능감 | -.37 | -.37 | .09 | -4.08 | .000*** |
| 여가협상←자기효능감 | .11 | .11 | .10 | 1.09 | .277 |
| 참여←여가동기 | .75 | .50 | .16 | 4.75 | .005*** |
| 여가협상←여가동기 | .51 | .56 | .10 | 5.02 | .002** |
| 참여←여가제약 | -.20 | -.12 | .10 | -1.98 | .048* |
| 여가협상←여가제약 | -.07 | -.07 | .07 | -.99 | .321 |
| 참여←여가협상 | .43 | .26 | .16 | 2.72 | .007** |

* $p<.05$, ** $p<.01$, *** $p<.001$

연구모형은 경로계수의 방향성과 통계적 유의성에 따라 가설의 기각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연구모형을 검정하기 위하여 먼저 측정변인들 간의 추정계수에 대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경로계수를 확인하였다. 표 3에는 연구모형의 비표준화 경로계수(RW), 표준화 경로계수(SRW), 표준오차(S.E.), 기각역(C.R.), 유의수준(p) 등이 제시되어 있다.

표 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6개의 경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동기에 직접 정적인 영향($SRW=.55$, $C.R.=5.79$, $p<.001$)을 미치고, 제약에는 직접 부적인 영향($SRW=-.37$, $C.R.=-4.08$,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협상에는 직접 정적인 영향($SRW=.11$)을 주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C.R.=1.09$, $p>.05$)으로 나타났다.

동기는 참여에 직접 정적인 영향($SRW=.50$, $C.R.=4.75$, $p<.01$)을 미치며, 협상에도 직접 정적인 영향($SRW=.56$, $C.R.=5.02$, $p<.01$)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약은 참여에 직접 부적인 영향($SRW=-.12$, $C.R.=-1.98$, $p<.05$)을 주며, 협상에도 부적인 영향($SRW=-.07$, $C.R.=-0.99$, $p>.05$)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상은 여가동기로부터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참여에 직접 정적인 영향($SRW=.26$, $C.R.=2.72$,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중 영향이 가장 큰 것은 동기($\beta=.50$)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협상($\beta=.26$), 제약($\beta=-.1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 동기와 협상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제약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전체 경로에 대한 모수추정치를 종합한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된 구조모형의 8개 경로 중 6개 경로들(자기효능감→동기, 자기효능감→제약, 동기→참여, 동기→협상, 제약→참여, 협상→참여)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개 경로(자기효능감→협상, 제약→협상)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모형의 인과효과 분석

연구모형의 전체 8개 경로 중 6개 경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 채택되었으며, 2개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진지한 여가의 특성을 보이는 암벽등반활동 참여자의 자기효능감, 동기, 제약, 협상 및 참여 사이에 설정된 연구모형을 검정하고, 변인 간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인과효과를 분해하였다.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자기효능감→동기($\beta=.55$), 자기효능감→제약($\beta=-.37$), 동기→협상($\beta=.56$), 동기→참여($\beta=.50$), 제약→참여($\beta=-.12$), 협상→참여($\beta=.26$)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연구모형 측정변인 간의 인과효과

| | 자기효능감 | | | 동기 | | | 제약 | | | 협상 | | | 참여 | | |
|----|-------|-----|------|-----|-----|-----|------|------|------|-----|---|-----|----|---|---|
| | D | I | T | D | I | T | D | I | T | D | I | T | D | I | T |
| 동기 | .55 | 0 | .5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제약 | -.37 | 0 | -.3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협상 | .11 | .34 | .45 | .56 | 0 | .56 | -.07 | 0 | -.07 | 0 | 0 | 0 | 0 | 0 | 0 |
| 참여 | 0 | .43 | .43 | .50 | .14 | .64 | -.12 | -.02 | -.14 | .26 | 0 | .26 | 0 | 0 | 0 |

D: 직접효과, I: 간접효과, T: 총효과

또한 자기효능감→협상의 간접효과($\beta = .34$)는 [자기효능감→동기($\beta = .55$)]×[동기→협상($\beta = .56$)]의 결과이며, 동기→참여의 간접효과($\beta = .14$)는 [동기→협상($\beta = .56$)]×[협상→참여($\beta = .50$)]의 결과이다. 자기효능감→참여의 간접효과($\beta = .43$)는 [자기효능감→동기($\beta = .55$)]×[동기→참여($\beta = .50$)], [자기효능감→제약($\beta = -.37$)]×[제약→참여($\beta = -.12$)] 및 [자기효능감→협상($\beta = .11$)]×[협상→참여($\beta = .26$)]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연구모형의 전체적인 인과효과는 크게 자기효능감과 동기, 제약 및 협상과의 관계, 제약과 협상의 관계, 그리고 동기, 제약 및 협상과 참여의 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자기효능감의 인과효과는 자기효능감→동기($\beta = .55$)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직접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자기효능감→제약($\beta = -.37$)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직접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자기효능감은 직접적으로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제약을 억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과 협상의 직접적인 인과효과($\beta = .11$)와 제약과 협상의 직접적인 인과효과($\beta = -.07$)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의 인과효과를 살펴보면 동기→참여($\beta = .50$), 협상→참여($\beta = .26$)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p < .01$)한 정적 직접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제약→참여($\beta = -.12$)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p < .05$)한 부적 직접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참여는 동기와 협상에 의하여 촉진되며, 제약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현된 진지한 여가 활동 참여 모형은 그림 3과 같다.

연구모형을 통해 협상효능감은 여가제약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여가동기와 여가협상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여가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상효능감과 여가협상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가설모형으로 설정한 Loucks-Atkinson와 Mannell(2007)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며, White(2008)의 연구결과와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항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모형의 기본적 토대를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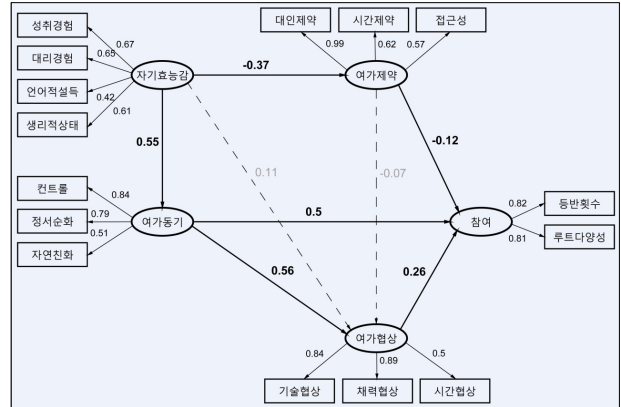


그림 3. 진지한 여가 활동 참여 모형

공하고 있는 Hubbard와 Mannell(2001)의 제약효과 완화 모형에서 설명하는 여가제약과 여가협상의 관계, 즉 여가제약이 협상전략을 유발하여 제약을 극복하게 하여 참여를 증가시킨다는 이론과는 다르게 여가제약과 여가협상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가제약과 여가협상은 참여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관계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정소연, 2004; 김경식, 2009; Son et al., 2008; White, 2008), 협상효능감과 여가협상의 관계와 여가제약과 여가협상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여가활동 유형 등의 차이와, 여가활동 참여자가 느끼는 제약의 정도 및 협상과정의 방향 등의 차이에 따라 제약과 협상의 관계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자기효능감이 여가동기와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Bandura(1997)의 이론을 기초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인 협상효능감이 여가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여가동기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여가동기는 협상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킨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협상효능감은 여가동기를 통해 여가참여에 영향을 주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협상의 개념적 모형을 제시한 선행연구(Loucks-Atkinson and Mannell, 2007; White, 2008)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협상효능감이 여가협상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본 연구에서는 협상효능감을 '자기효능감' 또는 '참여효능감'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V. 결론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모형에 사용된 주요 요인들의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주요 요인별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쳐 구성된 요인 모형들에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를 부여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논의된 요인들을 구성적 개념으로 하는 연구모형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정 결과, 등반활동의 참여과정을 검증한 결과 여가동기는 여가활동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h1), 여가협상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h3)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여가계약은 여가활동참여에 부적적인 영향을 준다(h2)는 가설은 채택되었으나, 여가협상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h4)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여가협상은 여가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h5)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자기효능감은 여가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h6), 여가계약에 부적적인 영향을 준다(h7)는 가설은 채택되었으나, 여가협상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h8)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결과적으로 진지한 여가 특성을 갖고 있는 암벽 등반활동 참여과정에 있어 제약과 협상은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나, 여가계약이 여가협상을 유발하여 여가참여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기각되었다. 연구의 시작과정에 진지한 여가의 특성으로 제약이 협상을 유발하는 영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은 성립 되지 않았으나 그 원인은 진지한 여가 특성을 갖고 있는 암벽 등반활동 참여자들은 개인적 제약을 여가계약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또한 암벽 등반활동의 여가계약으로 구성된 요인들은 진지한 여가 특성의 '인내' 및 '전문성' 요인에 의해 부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벽 등반활동의 여가협상은 진지한 여가 특성의 '노력' 요인에 의해 정적 영향을 받아 제약협상보다는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동기협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자기효능감은 이와 같은 구조방정식모형의 인과관계에서 여가동기와 여가계약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만 여가협상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아 협상효능감이 아닌 동기효능감과 제약효능감으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의 구성이 제약과 협상을 서로 독립적인 요인으로 분리시키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 진지한 여가의 특성을 갖고 있는 암벽 등반활동 참여 과정에 있어 여가계약과 여가협상이 서로 독립적으로 참여에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진지한 여가의 여가활동 참여과정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진지한 여가에서 구현되는 제약과 협상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증적 연구와 함께 여가활동 참여과정에 관계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진지한 여가의 활동 유형에 따른 아마추어, 취미생활가 및 자원자에 대한 여가동기, 제약 및 협상 등에 대한 심화된 이론적 비교 연구는 진지한 여가활동의 참여과정에 대한 구조적 관계의 실증적 연구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진지한 여가활동의 참여과정을 일반화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용문헌

1. 김경식(2009) 사회체육참가자의 여가계약 극복과정 구조모형 분석. 한국스포츠사회체육학회지 22(1): 61-76.
2. 김유일, 강석희(2000) 여가활동 참여에 이어서 제약유형의 위계적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8(1): 29-36.
3. 박봉섭, 박수정, 김민규(2008) 진지한 여가로서의 모험스포츠 발전 방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2(3): 177-185.
4. 박세혁(1997) 사회체육소비자의 전문화 정도에 따른 마케팅 전략. 한국사회체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 106-116.
5. 정소연(2004) 온라인 여가동호인의 여가계약협상과정에 관한 구조분석. 한국관광학회 2004년도 제55차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501-516.
6. Banduras,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7. Carroll, B. and K. Alexandris(1997) Perception of constraints and strength of motivation: Their relationship to recreational sport participation in Gree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3): 279-299.
8. Crawford, D. W., E. L. Jackson and G. Godbey(1991) A hierarchic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3: 309-320.
9. Csikszentmihalyi, M.(1975) *Beyond Boredom and Anxiety*. San Francisco, CA: Jossey-Bass, Inc.
10. Fornell, C. and D. F. Larcker(1981) Evaluating structure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11. Gortner, R. and S. Jenkins(1990) Self-efficacy and activity level following cardiac surger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5: 1132-1138.
12. Gould, D. and M. Weiss(1981) The effect of model similarity and model talk on self-efficacy and muscular endurance. *Journal of Psychology* 3(1): 17-29.
13. Hubbard, J. and R. C. Mannell(2001) Testing competing models of the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 process in a corporate employee recreation setting. *Leisure Sciences* 23(3): 145-163.
14. Jackson, E. L.(1988) Leisure constraints: A survey of past research. *Leisure Sciences* 10(3): 203-215.
15. Jackson, E. L. and V. C. Rucks(1995)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by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7(1): 85-105.
16. Jackson, E. L., D. W. Crawford and G. Godbey(1993)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 15(1): 1-11.
17. Kelly, J. R.(1996) *Leisure*(3rd ed.). Boston: Allyn and Bacon.
18. Loucks-Atkinson, A. and R. C. Mannell(2007) Role of self efficacy in the constraints negotiation process: The case of individuals with fibromyalgia syndrome. *Leisure Sciences* 29(1): 19-36.
19. Nunnally, J. C.(1978)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20. Raedeke, T. D. and D. Burton(1997) Personal investment perspective on leisure- time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Role of incentives, program compatibility, and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4(3): 209-228.
21. Rosenstock, I. M., V. J. Stretcher and M. H. Becker(1988) Social learning theory and the health belief model. *Health Education Quarterly* 15: 175-83.
22. Son, J. S., A. J. Mowen and D. L. Kerstetter(2008) Testing alternative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 model: An extension of Hubbard and Mannell's study. *Leisure Science* 30: 198-216.
23. Stebbins, R. A.(1992) *Amateurs, Professionals, and Serious Leisure*. Montreal: McGill-Queen' University Press.
24. Stebbins, R. A.(2005) Project-based leisure: Theoretical neglect of a common use of free time. *Leisure Studies* 24: 1-11.
25. Stebbins, R. A.(2007) *Serious Leisure: A Perspective for our Time*. New runswick, NJ: Aldine/Transaction.
26. White, D. D.(2008) A structur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 in outdoor recreation. *Leisure Sciences* 30(4): 342-359.